

신년사

一 即 多, 多 即 一

불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 없
는 정진으로 복된 한 해가 되
기를 서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짐과 각오로 새해 아침을 맞이
합니다만, 그에 앞서 지난 한 해
를 돌아보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보냈던 한 해였는
가?'를 반성해보는 자세가 필요
하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계획
과 각오가 있겠
지만, 우리 불자
로서는 무엇보다
나의 수행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로
게 하는 것이 모
든 것의 근본이
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임오
년 새해는 말의
해입니다. 말의 본
성은 뛰는 것임니

가. 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 국
제적인 행사인 월드컵 대회가 열
리는 해입니다. 그리고 대선도 있
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이를 기해 우리나라에 좀더 보탬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
니다. 또, 우리의 불교문화를 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
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은

한편으로 국가를
위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
불교를 널리 알
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불자들의 한 마
음에서 출발한다
는 점을 강조드
리고 싶습니다.
나의 신행이 올바
르고 수신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불



불교 총지중 총리원장

혜 암 합장

수행자세와 마음가짐 변모 大我的인 나를 만들어 갈 때

다. 그야말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종단도 그렇거니와 국가적
으로도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해에는 좀더 대아적(大我的)인
나를 만들어 가 보도록 합시다.
서원장진을 할 때, 나의 개인적인
서원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인류를 위하
는 대승적 서원을 세워봅시다.

종교의 대사회 활동은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종교의 역할이기
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종
단은 금년에도 더욱 이웃과 사회
에 가까이 다가서는 중무행정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이웃과 사회, 국가를 위하고 대
사회적인 포교를 위해 여러 가지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구
나 올해는 저희 종단이 창종 30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
다. 크고 작은 불사를 통해 대사
회적인 활동으로 회향되는 한 해
가 되도록 중무행정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관심
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해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국

교를 볼 수 있을 것이며, 포교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런고로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
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인 것입니다. 일즉다 다즉일, 나
개인의 일이 모든 일이고, 모든
일은 나 개인의 일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해아침에 작은 생활화두 하
나를 들고 한 해를 맞이하여 보
시다. '소원성취를 바라거든 남을
사랑하고 정을 베풀도록 하자. 그
러면 자연히 나의 마음은 따뜻해
질 것이다. 차고 등글고 큰마
음, 그것이 내 마음이다.'

이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새해
를 맞이합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인과를 믿고
재앙은 공을 차듯 차버리고 오로
지 성취만을 이루시기를 법신 대
일여래 부처님께 기원 드리며, 사
천만 국민이 모두 하나되어 월드
컵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
기를 대일여래 부처님께 지심으로
기원을 올립니다.

총기31년 (불기2546년)
새해 아침

가사·법의 봉대 가지 불사 성대한 회향

1,000여명 교도 참석, 황금가사 자색법의 선보여



창종 3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모습으
로 변모된 가사 법의를 비로자나 부처
님께 봉안하고 가지하여 세상에 나누는
법회가 지난 12월26일 부산 정각사에서
가사·법의 봉대 가지 불사가 스승 및
교도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
게 열렸다.

개식사(총무부장 원송)를 시작으로
가사법의 통본봉, 보소청진인, 유치, 육
법공양 및 가사법의 이운 및 봉안과 가
사법의 봉정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록정종령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
아시리여, 능히 중생을 잘 가르쳐서 모두
다 일심을 얻게 하고, 법뇌의 물을 건네
어 악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아시리
여, 스스로를 잘 다스려 순박하고 맑은
대지비로써 일체중생을 대할 것이다...."
며 심기 일전하여 중생 교화와 스스로의
해탈을 위해 용맹정진을 부탁하였다.

인사말씀에 해암 총리원장은 "이 가
사불사는 창종 이래로, 종단으로서의 아

주 큰 의미가 있고, 뜻 깊은 일대 대불
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정 대성사계
서 몸소 실천하고 체득하여, 여러 가지
의 밀교 수법으로 세우신 교상과 사상
이, 이번 가사법으로 더욱 체계를 확고
히 한, 의미 깊은 불사라 하였습니다.
가사 하나 마다, 연화의 수다라 한 매듭
매듭마다, 그리고 법의 한자락 자락 마
다 밀교의 상징과 의미뿐만 아니라 종
조 원정대성사님께서 세우신 교의가 깊
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인사말
씀을 하셨습니다.

또 법등 교정부장은 가사 법의 상징.
의미 설명하여 "법의는 양 소매 끝단에
각각 3개의 선을 넣어 삼밀을 상징적으
로 나타내었고 옆 솔기에는 각각 6개의
주름을 넣어 육대사상과 육바라밀의 실
천을 표현하였고, 색상으로는 밀교의 오
불가문대 중심불인 비로자나불을 나타
내는 황금색은 종령님께 배대하였으며,
자색은 밀교장경의 서두에 설하고 있는

바를 따랐다. 또한 요대 아래에는 수다
라라고 하는 연꽃매듭을 달고, 왼쪽에는
태장계의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아자의
법자와, 오른쪽에는 금강계 대일여래의
법자 종자를 넣었고 육박상을 가운데로
삼아 바로 총지중의 중요한 사상을 상징
화 하였다". 이날 많은 교도들의 동참으
로 정각사 서원당이 비좁아 1층에서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서원당에서 열린
법회를 1층에서도 동시에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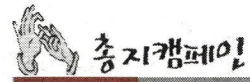
이날 참석자중 교도들은 한결같이 이
제 스승님들의 법의가 갖춰져서 교화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것이라 즐거워
하였다. 특히 기존의 검은색법의가 어둡
고 너무 경건하여 쉽게 스승님에게 다
가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도반
처럼 때로는 큰스승처럼 쉽게 다가설수
있을 것이라했다.

또한 법의 가사를 디자인하고 제단완
성을 한 한성대학교 이기향 교수와 이
상국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죽비소리

법(法)을 주세요
더욱 어른스러운 사람으로 보았나보다
한낱 서산(西山)에 기우는 해도 내일을 기약한다.
예야 젊은 시절의 고행(苦行)이야 그 무엇 말할
나이 없으리라 고락(苦樂)이 상대(相對)하고 있다.
법(法)을 쓰려고 하면 멀리 달아난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즐기고 하면 달아나고
멀어지고 갖고자 하면 잊어 버리고 만들려고 하면
부서지고 그렇기에 쥐어 즐기고 하면 그 순간

홀어져 버렸다. 法이라 물수 변에 갈거라 했다.
지금 법(法)속을 가고 있다. 초,분,시,일,월,년이
가고 있는 것과 같이....
중중제망(衆衆諸網)속에 동반하고 흐르고 있다.
불법속에 우리들이 있다. 그리고 법계(法界)안에서
생활하는데 대일여래(大日如來)부처님 안에 놀고 있다.
내가 바르게 생활할 때 모두 주위도 바르게
될려고 하고 평안해진다.
탐진치(貪瞋癡)를 화해지 희용지(喜勇智) 그 모두도 홀
러가고 있다. 그 모두가 세월이 가고 있는 흔적 세월이 법
(法)이요 세월이 불(佛)이라. (총지화 기로스승)



한해가 또 가고...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기분은 나이에 따라 다
른 것 같다. 젊은 시절에는 지나간 해에 대한 아쉬움
보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다 지나간 해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과연 나는 지금
새해를 맞는 기대감이 더 큰지 아니면 지나간 해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지...

새해는 불기로는 2546년이고, 단기4335년이며, 총기
31년이며, 서기2002년이며, 임오년이다. 간지로 말하
면 올해는 말(馬)의 해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말을
제왕출현의 징표로서 신성시했으며 초자연적인 세계
와 교통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왔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왕은 말이 전해준 알에서 태어났다.

고구려 시조 주몽이 타고 땅 속을 통하여 조천석
(朝天石)으로 나아가 승천했다는 기린말도 말을 신성
시한 징표이다. 조선 태조는 서울 동대문 밖에 마조
단(馬祖壇)을 설치, 중춘(仲春)에 길일을 택하여 제
사를 지냈다. 마조단 말의 수호신인 방성(房星)의 별
칭이다. 방성은 천자를 보위하고 천마를 관장한다.
흔인 풍속에서 신랑은 백마를 타고 가는데, 이것은
말과 관련된 태양신화와 천마(天馬)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말은 태양을 나타내고 태양은 남성을 의미한
다.

또한 무속에서 말은 하늘을 상징하며 날개 달린 천
마는 상제(上帝) 타고 하늘을 달린다고 전한다. 민간
에서는 말을 무신으로 여겼으며 쇠나 나무로 말 모양
을 만들어 수호신으로 삼기도 하였다. 고래(古來)로
기마병은 전투를 승전으로 이끈다 하여 말은 씩씩한
무사를 나타내며, 말피에 태어난 사람은 용병력과 활
동력이 강하여 매사에 적극적이라 하였다. 새해는 달
리는 말처럼 힘차게 출발했으면 한다.

불교에서도 새해를 시작할 때 세말(歲調)이라고 하
는 신년례례식을 한다 이는 새해 첫날 부처님을 비롯
한 삼보와 호법신중, 대중에게 드리는 의식이다. 우
선 부처에게 삼배를 올리고, 법보와 승보에게도 삼배
를 올린다. 또한 함께 참석한 대중들도 서로 예배를
한다.

세속의 세배와는 달리 삼보의 은혜를 입고 있는 대
중들이 그 동안의 은덕에 감사하고, 모두에게 부처의
자비가 함께 할 것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우리종단도
이와 같은 의미인 새해불공을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께 그리고 법보, 승보에 예를 올리며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기원도 하며 불공 기간
동안 지나간 한해를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총지중의 새해불공인 것이다.

일주일동안 매일매일 사문정진을 통해 내 마음을
쳐다보고 마지막 7시간 정진으로 새해의 뜻을 세우
는 의미 있는 불공에 올해도 많은 동참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총지중보 독자 여러분 가정에도 새해에도 부
처님의 자비공명이 항상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서원
합니다.

금강법계중 밀법도량-불교 총지중

부처 법위3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신사년을 뒤로하고 말의해 임오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법향과 가지가 충만하길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지심참회, 진언수행, 육바라밀실천, 용맹정진으로 교도가정에 해탈과

임오년을 희망의 한해로 만들어 가길 서원합니다.

2002년 임오년 새해아침

불교총지중 총리원장 혜 암



사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옛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날 날 없다'는 말이 있다. 작년 한 해는 테러, 보복전쟁이다, 부정부패, 조폭... 등등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유달리 국내외적으로 크게 시끄러웠다. 가지 많은 나무들이 한 나라에, 또 세계 도처에 수없이 많으니 조용한 날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일 듯 싶다.

지금,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다운 교육자는 거의 없고 지식판매원들만 득실거리며, 백성을 생각하며 밤새워 고뇌하는 정치가는 찾아 볼 수 없고 당리당략이나 일신(一身)의 이익만을 꾀하는 정승모리배들만이 득승하며, 이 사회나 국가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자신의 재산 불리기에만 혈안이 된 장삿배들만 우글거리며, 진정한 종교지도자는 만나보기가 어렵고 복(福)받기 대하나 주선하여 도로 중생의 탐욕심에 불이나 불려 자신의 부(富)를 축적해 가는 또 다른 형태의 장삿꾼들만이 판치는 아슬아슬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중생, 그것도 지독한 중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사니 어찌 복잡하고도 시끄러운 일들이 한 찰나라도 없을 수가 있을까마는, 각자 그러한 문제들로 해서 불안하고도 괴로우니까 조금이라도 벗어날 길이 없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으로 각 시대 각 나라마다 법이나 제도 등을 많이 또 복잡하게 만들어 시행해 보지만, 사태들이 전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갈수록 정도가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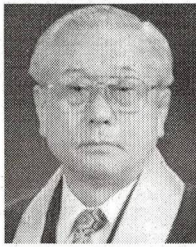
어찌든 저러한 안타까운 교육자나 한심한 정치가나 지독한 경제인이나 웃기는 종교인들도 모두 이 나라의 백성들이 낳아 기른 이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과 권력에 환장한 부모들 밑에서, 부와 벼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교육을 받으며,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을 넘어 전쟁에 가까운 학교교육을 강요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재관주위(財官爲主)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갖게 되며,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보다는 대개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며 무조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무서운 인간으로 되어버린다. 또 그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으므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도 없이 자기자신의 교육도 또한 그렇게 더욱 열심히 시켜 나간다. 이러한 악순환이 끝없이 계속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안해하며 서로를 불신(不信)하고 투쟁하며 자타공멸(自他共滅)의 길로 흘러가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테러·전쟁·폭력·부정부패 등의 형태로 나타나 우리 모두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게 하는 것이다. 대체 그 사건들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들을 해결할 무슨 묘안은 없는 것일까? 사실, 그것들의 근본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 근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모두 말씀해 놓고 있다. 우리는 그 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 분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중생들의 모든 문제는 탐·진·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 정법(正法)을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없애나기는 수행을 각자가 그대로 실천하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변할 리 없다. 기실 인간들의 모든 잘못된 문제들의 가장 밑바탕에는 탐·진·치가 깔려 있으며, 그것을 벗어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수행을 통해 개개인이 그것들을 조금씩이나마 지워가는 길 밖에 없다. 어떤 절대자에 대한 기도만으로는 결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 누구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중동지역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부러 굶어가며 절대자에게 기도해서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인가? 문제점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막연한 어떤 절대자에게 부탁하거나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점들은 바로 자기의 마음에서 연기(緣起)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자기구원이자, 절대자에 의한 구원이 아닌 것이다. 만약 절대자가 꼭 있어야 된다면, 각 개인 스스로가 절대자가 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이러한 진정한 구원, 곧 자기구원이 바로 불교의 해탈(解脫)이다. 개개인이 자신의 탐·진·치를 스스로 지워나가는 해탈의 길을 걸어갈 때, 걸어간 만큼 그 개인 그 사회 그 나라, 나아가 이 세계는 꼭 그 만큼만 자유롭고도 편안해질 것이다. 비유하자면, 한강 주변의 사람들이 각자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때, 꼭 그 만큼만 한강물이 깨끗해질 수 있듯이... 절대자에게는 한강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올려도 안 되듯이... 개인 스스로가 탐·진·치를 없애나갈 정화(淨化)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승에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저승에서는 결코 극락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생경(生硬)한 철학적 사변이나 허황한 종교적 구원을 넘어 정법에 의한 불교적인 득도(得道)의 세계로 들어설 때 곧 모두가 불교적 수행자가 될 때, 그 때 비로소 우리 인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그 모임인 인류나 우리의 행복과 평화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바로 불교의 수행에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임오년 종령 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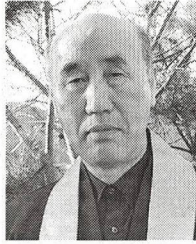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이제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총지중

종령 祿靜 합장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를 계기로 새롭게 마음을 추스르고 다잡는 것이 또한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회회장 신년사



그 어느해 보다도 혹심한 가뭄속에서 물밀 듯 들어오는 농수산물

중앙종의회 의장

의강 합장
고 위정자와 일부 부도덕한 악덕 기업인들의 파렴치한 비리와 부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어렵고 힘든 부조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 모두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며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치달려 왔음에도 갈수록 사회현상은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를 갖고 닦지 못하고 물질 위주의 행복만을 추구한 데서 비

참된 지혜를 갖고 닦아야

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의 힘이 더욱 절실하지만 세속 의도들의 작태를 보면 오히려 종교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지혜와 자비를 강조하며 보살행을 앞세우는 불교조차도 그

지도자들의 추태로 인하여 왜곡되게 비치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펼칠 생각은 하지 않고 불법을 빙자하여 명예를 추구하고 호의호식에 눈 먼 자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뼈를 깎는 수행 대

신에 지리다름에 혈안이 되어 얼굴 보이는 것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부처님

의 바른 법을 배우고 닦아 눈 밝은 불자가 되어 인류의 유산인 불교를 지켜 내야 합니다.

이제 이 인류를 구제할 마지막 보루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 불교 밖에 없다는 자각을 철저히 하고 항상 정도를 받들어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합시다.

이 나라를 정신적 황폐로부터 구제하고 조상의 얼이 빛나는 불교 유산과 아름다운 이 강산을 온전히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의 큰 역할이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용맹정진을 서원합니다.

임오년 새해 아침

백마기상으로 희망과 용기 갖자

년은 종조 원정대사님께서 정통불교인 불교총지중을 이땅에 창종하신지 만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경축의 해」이기도 합니다.

전 승단은 종조님의 위대한 창종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하루가 다

원하여 이 엄청난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묘안과 보편타당한 공감대를 이룰수 있는 실행방안이 절실히 강구되어야 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상과 아집을 말끔히 씻

어버리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거두고 찾으면서 여러대중의 의견과 생각들을 겸허히 수렴할 수 있는 이해와 애정이 넘치는 승단의 모습으로 거듭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종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고 내실있는 굳건한 교단을 확립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교세발전에 일익증정되는 전기의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종령님과 스승님들의 법체가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종지종 교도 여러분의 용맹정진과 가정과 직장에 항상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31년 불교총지중 연중계획

월	내 용	비 고
1월	사무식 새해불공 신년하례법회 및 퇴임식 종조탄신일	통리원 및 각 사원 각 사원
2월	월초불공 종립 동해중학교 졸업식 49일 불공 입제 월초불공	동해중학교 각 사원 각 사원
3월	종지사 불단이설불사 수명 관정 수계식 통리원 감사 동해중학교 입학식 월초불공	통리원 동해중학교 각 사원 각 사원
4월	49일 불공 회향 춘계강공 OP점점식 월초불공	본원 7사단 각 사원
5월	만다라 불단 불사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하반기 49일 불공 입제 불교총지중 전국 합창단 경연대회	각 사원 각 사원
6월	월초불공 총기 30주년 기념 행사	각 사원
7월	월초불공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청소년 수련대회 어린이 수련대회 동해중학교 수련대회 경로수련 법회	수련원 수련원 수련원 수련원 수련원
8월	월초불공 하반기 휴가	각 사원
9월	월초불공 종조탄신일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기념일	각 사원 각 사원 동해중학교
10월	월초불공 추계강공회 한중일 불교도 대회	본원 중국 북경
11월	월초불공	각 사원
12월	월초불공 창교일 종무식	각 사원 각 사원

※본 계획서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시기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법황사 신축사원 업자 결정

전당건설위원회, 광주 국토건설(주) 선정



지난 12월19일 광주 법황사 공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당건설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해암통리원장은 "시공업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견적서를 봉합하여 이 자리에 가져 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봉을 하도록하겠다"며 "공개입찰을 통한 4개업체가 최종선정되어 오늘 시공업체를

선정하겠다"며 공정성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다.

지성 재무부장은 "지금까지 사원신축은 아쉬움 많이 남아 금년에는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별업체의 설명 후 각각의 견적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 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최저가 낙찰이 아닌 4개업체의 낙

찰가를 평균내어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여 전당건설위원회 최종 심사 결과 광주건설업체인 국토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종학)가 법황사 신축사원 업자로 결정이 났다.

이날 회의는 록정종령님을 위시한 전당건설위원회 8인이 결정하였다.

壬午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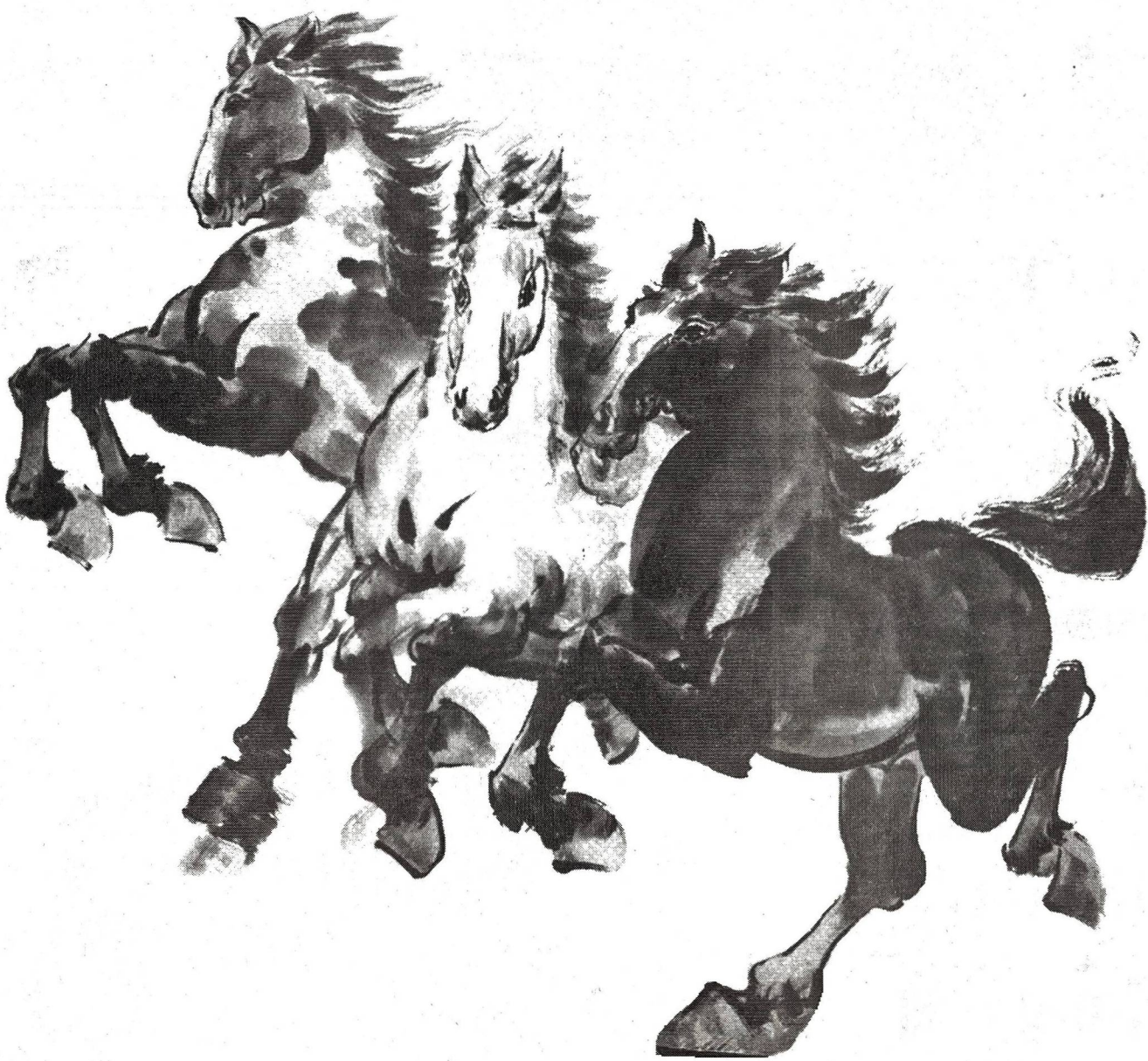
모든 교도 가정의

해탈을 이루는

희망의 한해가 되시길...

서울 · 경인교구장
부산 · 경남교구장
대구 · 경북교구장
충청 · 전라교구장

총부부장 : 원송
재무부장 : 지성
교정부장 : 법등
사회부장 : 대원



임오년 새해를 맞아 소원성취 하십시오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한 수 원 합장

종령님과 스승님들 그리고 보살님들께
조심스럽게 서필로 인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로 법석을 펼친 신사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소신
있게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쉽니다. 다음 새해에는

부처님의 육화(六和)정신으로 서로서로
돕고 더욱 열심히 융합정진 해야 겠습니
다.

지난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다
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였습니다. 국
제적으로는 대량살상,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니다. 한 사람의 힘보다는 모두가 좋은
의견들을 듣고 모으는 화합된 힘이 있을
때, 그 위신력으로 부처님의 가지(加持)
가 온누리에 뿌려질 것입니다.

임오년 말의 해, 말의 기상으로 용약
(勇躍)하도록 합시다.
스승님과 보살님들께서도 첫째 몸 건

육화(六和)의 정신으로 새해를

개인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어리
석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본래의 성인
'불자의 성'을 다시 찾도록 열심히 교화
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의 한 불자로서 서로서로 존경
과 자비로운 인욕행으로 의지하고, 무궁
한 교화발전이 있기를 부처님께 발원합

강하시고,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종단발
전에 기여하고, 우리 사명인 중생구제에
더욱 융합정진하고 매진해야겠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
니다.

옴마니반메훔



부산·경남 교구장
정 정 심 합장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청정 법
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기를 기원하며, 또한 어렵고 어려운 곳
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
람들이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기를 간

절히 기원합니다.
서원이란 삶의 강한 용기인 동시에 새
로운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고 성취하는 힘
은 바로 정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적은 물이라
도 항상 흐르면 능히 돌을 뚫을 수 있으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성품을 바르게 깨닫고, 진실한
보살로써의 바른 서원을 세워 정진해 나
가는 길.
보살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부디 진정한 보살로

바른 성품 깨닫고 서원성취의 한해

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새로운 각오와 목
표로 많은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년벽두의
확고하던 목표는 어느새 퇴보하기 쉽
습니다.
보살의 길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씨의 대서원을 세워 융합정진하는 한해
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가장가
정마다 소원성취하시고 이고득락하시기
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대구 경북교구 교구장
우 승 함장

2002년은 간지로 임오년(壬午年), 말
띠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은 12지 중 일곱 번째 동물로서 박
력과 생동감을 대표합니다. 내년 한해 우
리 모두는 말이 표현하는 박력과 생동감
으로 진언수행에 융합정진해야 할 것입
니다.
종조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이익과 안락과 진정한 지혜
의 법을 얻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능히
악한데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가 길이
지혜있는 참스승이 되어서 원만정성한
과보를 속히 증득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
니다. 악한 마음속에서는 악의 씨앗이 있
고 선한 마음속에서는 선한 씨앗이 발아

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
물은 고정불변한것은 하나도 없다 하였
습니다. 보는 것도 고정된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게 없고, 말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이 모든게 마음에 달려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부와 지위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중

육자 진언에 의지한 삶

하는 것입니다. 악의 씨앗은 삭이고 선한
씨앗을 소중히 가꾸어서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이루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
다. 남의 허물과 남의 잘잘못에 대한 비
판과 비난이 아닌 나의 마음속 깊은 곳
에서 출발한 분별심과 망상집착에 대한
독심을 없애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심의마음 겸허한 마음을 잊

생의 마음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종치종 전 승단과 교도들은 오직
육자진언에 의지하고 실천 수행하여 마
음의 해탈과 평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교도님들 가정에서 번
영과 해탈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진
언행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도합시다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법 수 원 합장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로서 신사년을 무
사히 보내고 임오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나라가 어지럽고들
하지만은 이 모두 잘 살기 위한 다름이
고 난리입니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 세상.
제논에 안경이라 했듯이 사람마다 보
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고요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이것
은 참 고요함이 아니지요. 시끄러운 곳에
서 고요함을 맛볼줄 알아야 이것이 참
고요함입니다.
서원당에 앉아 있을때의 마음과 거리
에 나와서의 마음이 같을 것인가.
시끄럽고 어려운 고비를 당해보면 우리
들 수행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합장은 사랑과 자비를 뜻하고 고개속
여 절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세계를 고집한지 않겠다는 마음입
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고개속이지 않고
는 결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땀이 허물을 벗듯 신사년을 뒤로하고
말의해 임오년을 희망의 한해로 만들어
가길 모든 교도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시끄러움속에서 고요함을 찾아야.

즐거은 자리에서야 누가 즐거워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참 즐거움이 아
닙니다. 괴롭고 아픔속에서 얻는 즐거움이
참 즐거움입니다.
괴로움이 따로있고 즐거움이 따로 있
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한번 돌리면 괴로움도 그대로 즐
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총기 31년 새해아침



불교 에세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잘못을 했으면서도, "이 정도 잘못이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며 오히려 고개를 뺏뺏이
쳐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극한 성인이 아닌 다음에야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잘못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조그만 잘못에도 부끄
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인간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마귀 같은 사
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남에게 뽐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죄업을 돌아보지 않는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
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는 이가 '아, 이것이 나의 허물이구나!' 하고
알고 뉘우쳐 드러낸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드러내지 않으면 자꾸만 변명과 자기 합리화
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일일
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부르는 일인
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가귀감>에서는,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

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그리
고 허물을 고쳐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그 마음 따라 없어질 것
이다.

즉 참회란 먼저 지은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드러내는
일이다. 마음이 본래 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죄업도 붙어있을 곳

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업을 드러내어 참회하면 언제
라도 그 허물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잘못된 행위
를 되풀이할 것이고, 잘못을 숨기려 하다가는 또 새로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부처님 재세시부터 행해져 온 참회의식 중에는 포살과 자자라

는 것이 있습니다. '포살(布薩)'은 매월 15일과 30일에, '자자(自恣)
'는 안거의 마지막 날에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신이 모르고 지날 수도 있는 허물을 대중들이 지적
해 주는 참회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대중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합장해서 큰 소리로 자신의 허물
을 물었습니다.

우리들도 부처님을 따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스스로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취하고, 사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거짓말로 남 속
이고, 아첨하고, 이간질하고, 악담과 폭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탐
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드러내어 참회해야 합니다. 드러내
는 것이 속스럽고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부처님께 고백하며 참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양동호 법사)

김 경 현 성 형 외 과

Dr. Kim's esthetic plastic surgery



약 력 : -가톨릭대학 의학과 졸업

수술전문 : 주름주사 및 레이저 박피

-강남성모병원 성형외과 스텝

-대림성모병원 성형외과 과장

진료시간 : -평일 10:00~6:30

-토요일 10:00~5:00

-휴일 예약진료

TEL 02-332-4456

FAX 02-332-4457

www.pskkh.pe.kr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화로를 머리에 이고

해인사 벽화에 비친 혜통선사의 이야기

가을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가야산 해인사 올라 가는 길은 정말 환상이었다.

도시의 탁한 공기가 아니 시원하고 맑은 산소를 느끼며 일주문으로 향하니 '가야산 제일문'이라...

해인사하면 법보총찰로서 세계문화유산이기도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있는 곳이며 불보살 통도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더불어 한국의 삼대 사찰로 꼽힌다. 또한 화엄심찰의 하나로 세워진 가람이다. 대적광전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았고 자세히 본 불자들은 알겠지만 결인이 대일여래 지권인이 아니라 준제결인을 하고 있어 흔하게 친견하는 것은 아니리라. 일반적으로 사찰 본당 건물 외벽에 불화그림들을 팔상도를 제일 많이 그리고 있다. 해인사 팔상도는 화쪽에 담아 대적광전내에 보관하고 있고 벽화는 선사들의 이야기로 장엄을 해놓고 있다. 그중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벽화가 눈길을 끈다. 혜통 선사의 이야기라 한다.

승려 혜통은 신라사람으로 그 조상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스님이 되기 전에 그는 남산 서쪽 기슭 은천동 어귀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집 동쪽 시내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그 뼈가 없어졌으므로 뒷자국을 따라 찾아가 보니 뼈가 여전에 살던 구멍으로 되돌아가 새끼 다섯 마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혜통은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놀라워하고 낫을 잃고 바라보던 그는 머물러 앉았다. 혜통은 죽어서까지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하는 고귀한 생명을 깨닫고 살생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들의 존엄성을 깨달아서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살생한 모든 생명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는 참된 진리의 길을 찾아 출가하여 이름을 혜통이라 했다.

혜통이 당나라로 가서 진언종의 무외삼장을 찾아가 뵈고 가르침을 청했더니 삼장이 말했다.

"어디에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오직 불법의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멀리 신라 땅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동쪽 변방 오랑캐가 아니냐? 어찌 불법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는 지방이야 동서남북이 있다 하겠지만, 법을 구하는 마음에는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많구나.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외삼장은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혜통은 이것을 자신의 근기와 심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외삼장의 문하에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하였다.

삼년이 지난 어느날 혜통이 다시 가르침을 청하였으나 삼장스님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할 뿐이었다. 혜통은 심법을 이어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는 불이 이글거려야 타오르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법을 구하는 자는 신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무외삼장의 앞으로 나아갔으나 곧 화로의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머리가 터지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무외삼장이 쓰러진 혜통에게 다가가 불이 담긴 화로를 치우고 손으로 터진 곳을 매만지며 주문을 외자 터진 자리가 아물면서 소생하였다. 그 뒤로부터 화롯불로 생긴 혜통의 머리 흉터 모양이 왕(王)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사람들은 혜통을 '왕스님'이라 불렀다.

혜통은 이렇게 하여 무외삼장의 심법을 전해받게 되었다.

당나라 황실에서 공주가 병이 났다. 그래서 고종이 삼장에게 치료해 주기를 청했더니 삼장은 자기 대신 혜통을 천거했다. 혜통이 명령을 받고 따로 거처하며 흰공 한말을 은 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그것이 변해서 흰 갑옷을 입은 신병이 되어 병마를 쫓았으나 이기지 못했다. 다시 검은공 한 말을 금 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그것이 변하여 검은 갑옷을 입은 신병이 되었다. 두 색의 신병을 합하여 병마를 쫓으니 갑자기 교통이 달아나고 병이 나았다. 교통은 혜통이 자기를 쫓아낸 것을 원망하여 신라의 문인림으로 가서 인명을 너무 심하게 해쳤다. 그때 정공이 사신으로 당나라에가 혜통을 보고 말했다.

"스님이 내뱉은 독룡이 본국에 와서 심한 해를 끼치니 속히 가서 그것을 없애주십시오"

혜통은 인덕 2년 을축년(665년)에 고국인 신라로 돌아와 용을 쫓아버렸다.

그는 신라 진언종의 초대 조사가 되었고 불법을 널리 펴으며 신통력 또한 뛰어나 가문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다.

신문왕이 등창으로 몹시 괴로움을 겪던 끝에 혜통스님에게 와서 치료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스님은 주문을 읊어 단번에 씻은

듯이 낳게 하였다.

"폐하께서는 전생에 재상으로 있을 때 억울하게 양민 신중을 잘못 관하여 종으로 삼은 일이 있습니다. 신중의 원한으로 문화환생할 때마다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절을 세워서 그의 명복을 빌고 원한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혜통이 이렇게 말하자 왕은 곧 절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절이 낙성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왕께서 절을 세워 주셨으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원망은 이미 풀렸습니다"

또한, 신문왕이 세상을 떠나고 효소왕이 왕위에 오르자 간신들의 중상모략에 의해 갑옷 입은 병사를 시켜 혜통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혜통이 왕망사에 있다가 갑옷 입은 병사가 오는 것을 보고 지붕에 올라가 사기병과 붉은 먹을 묻힌 붓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쳤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곧 사기병 목에 줄 하나를 그으면서 말했다. "너희들 각자의 목을 보아라" 그들이 목을 보니 모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같은 선사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다.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마음에 어찌 동서남북과 지위고하가 있겠는가?

인터뷰



심인장

중양신정회 부회장 및 만보사 신정회장

대전 만보사 불사와 중양신정회, 대전·충남지역연합 합창단 회장직 활동에 여념이 없는 심인장 보살을 만나 중양신정회 활동과 연합합창단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인장 회장의 왕성한 활동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답) 부처님의 가지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언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참나를 찾으려는 수행과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어디신지요

능력도 충분하지 못하여 자주 중책이 맡겨지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합니다. 현재 만보사 신정회장과 대전충남지역연합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중양신정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양 신정회가 지난 5월18일 창립이 되

었는데 현재 활동이 미진하게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중양 신정회의 골간인 지회와 교구 신정회의 구성은 완료되었으나 중앙본부 임원선출이 아직 마쳐지지 못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대의원 대회에서 회장직에 선출된 밀성관 회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의를 표한것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중앙임원을 선출하여 종단으로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종단과 스승 그리고 신정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로 종단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만보사 신정회 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량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만보사 신정회 활동에 앞서 만보사 주교스승님(법공)과 전수님(공덕성)의 애정과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님의 각별한 관심과 복지 실천행은 교도들의 자랑입니다. 특히 드러나지 않게 선전에 앞장선 스승님의 모범에 신정회가 뒷받침을 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성에 양로원, 유령 장애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양대학교 병원에 매주 1회씩 자원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 소

마음의 길 닦는 실천이 중요

회장님은 또 대전·충남지역 연합합창단 단장직을 맡고 있는데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 12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연합합창단 한마음 축제에 참가합니다. 서울시 국악관악악단 주최로 열린 이번 한마음 축제는 '우리는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총지종의 이름을 홍보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합창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세계합창 올림피아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단의

녀 가장들에게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의 도움을 주어 이번 수능시험에 언니는 한남대에 진학을 하였고 동생은 신일여중을 졸업했습니다.

만보사 불사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 현재 만보사에 극락전이 없습니다. 또 만보사 오는길이 가파라서 눈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극락전을 건설하고 들어오는 길과 마당을 넓혀고 교도들이 심심일만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단에서도 관심을 가져 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의보감

여성과 비만

비만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가관에서는 대부분 비만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양질의 삶을 영유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약들은 비만이 결코 만만하게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고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아름다워 지는 이익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에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비만의 원인을 알기 쉽게 분류하고 여성과 비만의 관계를 한의학적으로 풀어보기로 한다.한방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성의 생리적으로

체중이 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여성의 고유한 생리가 크게 임신과 출산, 월경, 냉(대하)이 근본인데 이중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다섯가지 요인이 체중증가를 야기한다.

먼저 스트레스를 보면 여성은 마음의 씩씩이가 내적으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에서 흔한 화병이라는 것은 여성 자신이 스스로 감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응어리가 생겨 가슴에 맺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먹는 것으로 화를 푸는 일이 잦아지며 이는 비만증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생리적인 체중증가 시기가 있어서 일생에 3번 이상의 비만이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첫째는 14세의 사춘기로 주로 하체와 힙에 찌기 쉬우며, 주로 똥글똥글 찌는 타입으로 군것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대체로 이시기에는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쉽게 약물을 먹게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나중에 요요현상이 나타나거나 성장이 중지되는등의 부작용이 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비만으로 여성의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된다. 그 변화를 비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배에 살이 찌고 허리와 엉덩이의 골격의 변화가 생기며 각각의 관절에 어혈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관절염이나 산후풍등이 쉽게 생길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외적으로는 허리와 엉덩이의 굵기에 변화가 오며, 흔히 말하는 몸이 변했다고 말하는 잘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중과 출산후의 기간중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 진다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불균형된 몸매 까지도 바꿀수 있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가 되는 49세를 전후하여 체중증가가 나타난다. 특히 이시기에는 체중은 늘어나면서도 뼈가 빠지는 시기로 골다공증과 각종 성인병에 대한 위험이 늘어나는 시기로서 체중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여성에게 원하는 체중 감량 시기는 단연코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하여 몸매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6개월 전에는 다이어트나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고, 피하지 못할 사정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4개월 전에는 시작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수 있으며 가장 체중을 감량하기에 좋은 시기는 출산 직후인데 이때는 생리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시기이면서 자신의 몸에서 자기체중을 인식하는 시기이므로 산후에 체중감량을 시도하면 보다 안전하고 획기적인 감량을 느낄 수 있다.

강남나한병원 한방내과 김철호 (문의 02-569-1011~4)

성인병의 주요 원인

체중이 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여성의 고유한 생리가 크게 임신과 출산, 월경, 냉(대하)이 근본인데 이중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다섯가지 요인이 체중증가를 야기한다.

먼저 스트레스를 보면 여성은 마음의 씩씩이가 내적으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에서 흔한 화병이라는 것은 여성 자신이 스스로 감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응어리가 생겨 가슴에 맺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먹는 것으로 화를 푸는 일이 잦아지며 이는 비만증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생리적인 체중증가 시기가 있어서 일생에 3번 이상의 비만이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첫째는 14세의 사춘기로 주로 하체와 힙에 찌기 쉬우며, 주로 똥글똥글 찌는 타입으로 군것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대체로 이시기에는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쉽게 약물을 먹게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나중에 요요현상이 나타나거나 성장이 중지되는등의 부작용이 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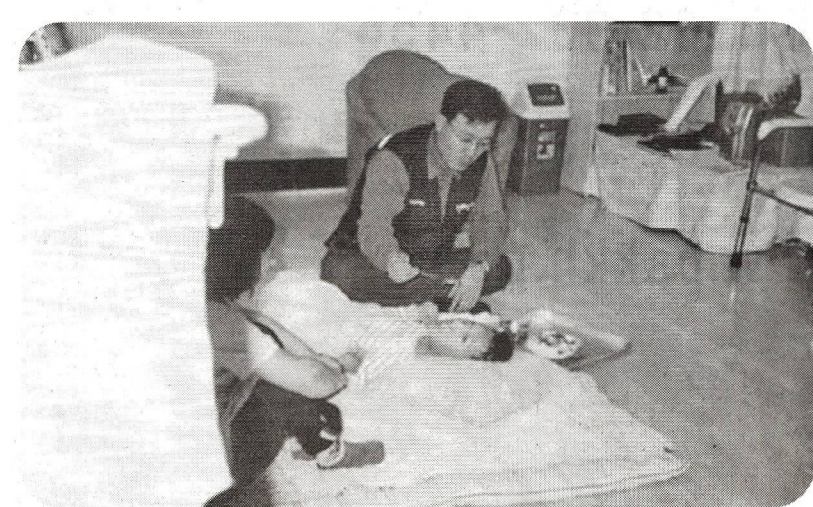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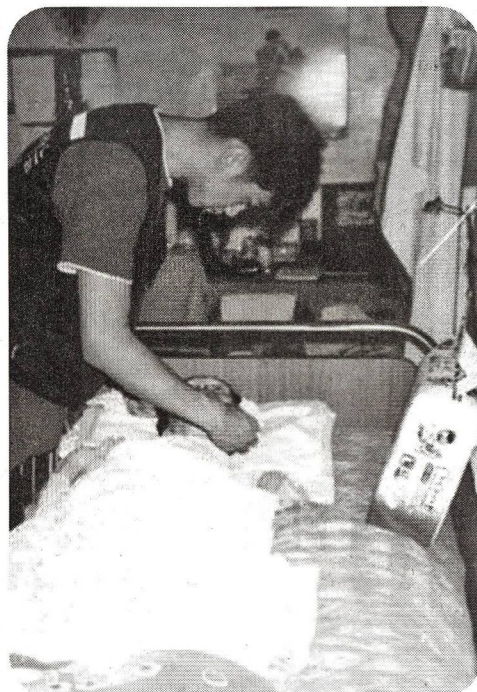
두 번째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비만으로 여성의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된다. 그 변화를 비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배에 살이 찌고 허리와 엉덩이의 골격의 변화가 생기며 각각의 관절에 어혈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관절염이나 산후풍등이 쉽게 생길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외적으로는 허리와 엉덩이의 굵기에 변화가 오며, 흔히 말하는 몸이 변했다고 말하는 잘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중과 출산후의 기간중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 진다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불균형된 몸매 까지도 바꿀수 있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가 되는 49세를 전후하여 체중증가가 나타난다. 특히 이시기에는 체중은 늘어나면서도 뼈가 빠지는 시기로 골다공증과 각종 성인병에 대한 위험이 늘어나는 시기로서 체중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여성에게 원하는 체중 감량 시기는 단연코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하여 몸매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6개월 전에는 다이어트나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고, 피하지 못할 사정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4개월 전에는 시작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수 있으며 가장 체중을 감량하기에 좋은 시기는 출산 직후인데 이때는 생리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시기이면서 자신의 몸에서 자기체중을 인식하는 시기이므로 산후에 체중감량을 시도하면 보다 안전하고 획기적인 감량을 느낄 수 있다.

강남나한병원 한방내과 김철호 (문의 02-569-1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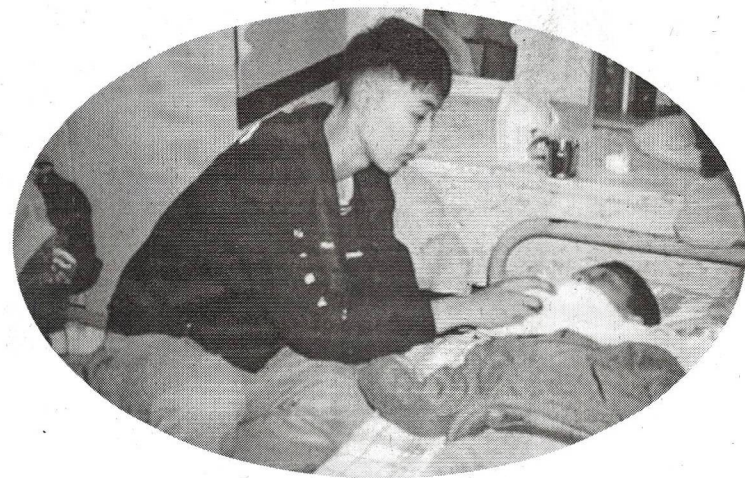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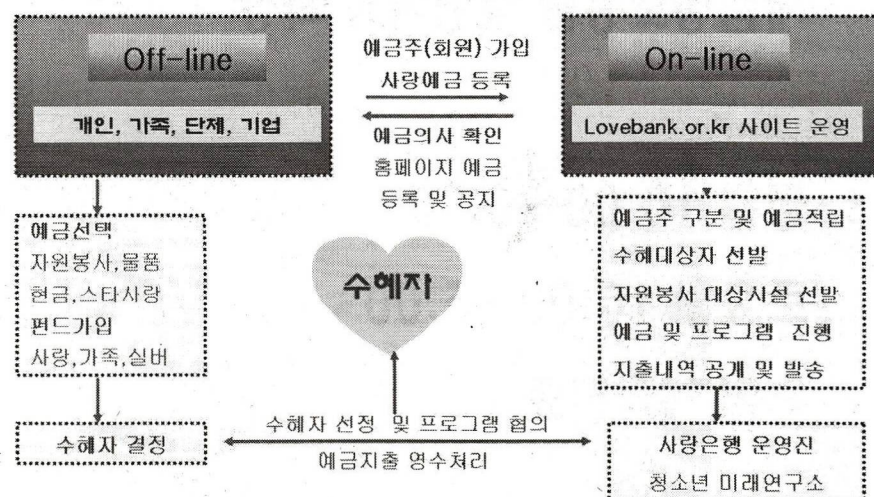


꿈 희망 사랑 Love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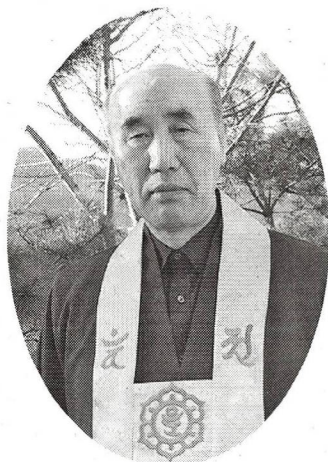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삼밀사 주교
의 강

지상설법

머무름 없는 마음공부

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혼자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탐욕려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고 겨센 파도와 싸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어부가 없으면 신선한 생선을 밥상에 올릴 수 없으며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국군장병이 있으므로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 생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부자라도 돈 그 자체를 씹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록 적게 가져오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과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들진 대중과 함께 따뜻한 인정과 정성을 나누어 가진다면 이 사람이 정말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욕심 내지 않고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무소유(無所有)의 역리(逆理)를 가끔 생각해봐도 꼭 의미있는 일입니다.

목은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 할때마다 스승으로써 소임과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후회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부모의 은혜와 일체중생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몸은 전체가 빚투성이 뿐이라는 것을 거듭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뿐인 생명과 육신을 어떻게 가꾸고 보존하여 진실로 삶의 가치를 승화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쳐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위대한 창조요 또한 축복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태어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여야 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연재인가 교도소와 구치소를 소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수용시설과 주변을 돌아본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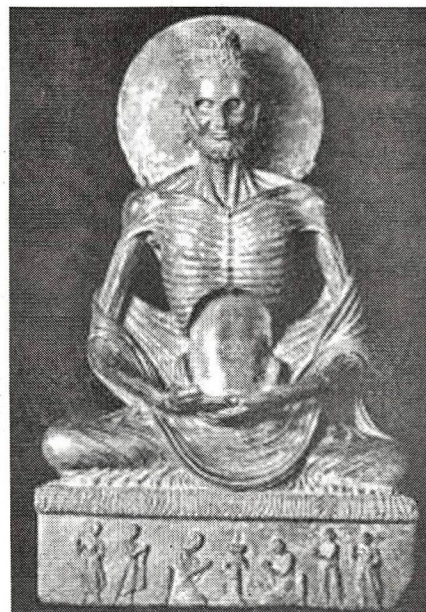
홀러기는 시간과 존재하는 공간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원으로 돌아온적이 있습니다. 사형수에게는 일본 일초가 생명 그 자체로 실감된다는 것을 깨치면서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으면서도 매사를 곧잘 다음날로 미루며 내일에 살려고 합니다. 생명의 한 토막인 하루 하루를 소홀히 낭비하면서 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인상이 지겨운 중생들은 때때로 인생의 종점에서 자신의 생을 재조명해보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그렇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것도 아니고, 하직할 때 가져갈 것도 아닙니다. 인연 따라 있었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처럼 불가사의 한것도 없습니다. 너그러울때는 온 세상을 두루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화내어 웅졸해지면 바늘하나 꽃을 자리가 없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남을 미



지극한 마음, 기도수행정진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

세상에 처음 날 때와 인연이 다해 돌아 갈 때에는 우리 모두는 빈손

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을 향해서는 곧잘 베풀라고 하면서도 나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베풀어 왔는지 한번쯤은 생각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마음에 따르지 말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사람들은 말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워하면 상대가 미워지는게 아니라 내마음이 미워지거나 아니꼬운 생각이나 미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피해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 버린다면 내 인생자체가 얼룩지고 맙니다. 법구경에 「죽은 쇠에서 생긴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 그 마음씨가 그늘지면 그 사람 자신이 녹슬고 만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我一勞經 不返紙墨或 展編無一字 常放大光明 「내게 한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 건 종이냐 먹으로 된게 아니라 펼쳐보아도 한글자 없지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

네.」 부처님 경에 있는 말입니다. 침묵 즉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고여있는 말들을 비로소 듣는다.

일체의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허심탄화한 그 마음에서 대광명이 발해진다는 말입니다. 구시화문(口是禍門) 입을 가르쳐 흔히 재앙의 문이라고 한 것도 그 역기능을 지적한 것입니다. 수도자 또는 수행자들이 침묵하고 묵상하는 것은 침묵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라는 여과과정을 거쳐 오로지 「참말, 만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어리와 묵언자가 다른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말을 해야 할 경우에도 침묵만 고수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인 것이다. 침묵의 의미는 쓸데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대신 당당하고 참된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소

들께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정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기도는 마음에 때를 끼게하여 결국에는 사도(邪道)로 빠져들게 된다. 진실한 불법은 달아나고 업장은 점점 두터워질 따름입니다. 중생으로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자 아득다라삼마삼보리심을 일으킨 발심한자를 보살이라 합니다.

즉 「나도 부처되어 지이다」라는 발원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보살은 자리아타(自利利他)를 기치로 삼구보리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즉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중생인 것입니다. 자신은 탐욕에 가득차 있고 화를 잘 내며 어리석으면서 다른 이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는 일마다 오히려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의 주체자인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키는 자리가 바로 부처님 마음자리일 때 중생이 바로 부처로 살게 되며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하는때일것입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상을 그려내니 오온이 마음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든 짓지 못할이 없다」 화엄경에 있는 말입니다.

한때 폭악무도했던 살인강도범이 죽기 전에 자기의 눈과 장지를 불쌍한 사람을 위해 선뜻 내놓는 그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바로 부처임을 철저히 믿어서 부처인 본래 자기를 되찾으려는 순간 곧 부처의 마음에 의해 자기와 남이 동시에 해탈하는 모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종 3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이 아말로 승단과 교도대중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원장대종사님의 창종이념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활불교, 대중불교로써 힘찬 발돋움과 새로운 정기의 발전이 모색되어야 하였습니다. 「應無所住而生其心」하라. 즉 응당 머무는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소인이 평소 마음에 새기면서 수시로 소리내어 읽어보는 금강경의 한 대목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순서없고 알맹이 없는 글로 새해인사를 맞으면서 항상 충고와 책정질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성도합니다.



아는만큼 보이고 느끼다

다라니 독송을 하면 좋은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무릇 불교의 수행법은 독경, 염불 좌선 정근 주력 등 여러 가지이나 그 이루고자하는 바는 한가지로 모두 일심으로 무상무념에 이르러 보리도를 이루는데 있다.

특히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라니라고하며 총지의 의미를 갖는 만큼 그 가지의 묘력이 크고 깊어 위로는 불보살과 제대현성 및 선신을 봉양하고 아래로는 지옥, 아귀, 축생 등 모든 중생에게 공양을 베풀고 안으로는 자신의 죄업과 업장을 참회하고 신주의 영험력으로 뜻한바 만사를 이루며 나아가 무상보리를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 구, 의 삼밀을 한데 모아 전심전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다라니(진언)를 독송하는 자는 열다섯가지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파문을 얻는데.

1. 나는 곳마다 항상 좋은 통치자를 만나고, 2.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며, 3. 항상 좋은 벗을 만나며, 4. 항상 좋은 마음을 받으며, 5. 항상 온전한 몸을 받으며, 6. 항상 道心이 돈독하며, 7. 도덕이나 계율을 어기지 않으며, 8. 집안 식구와 권속들이 항상 화순하고 은애가 있으며, 9. 재물과 의식이 항상 풍족하며, 10. 다른 사람이 항상 공경하고, 11. 재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12.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성취하며, 13. 용이나 하늘이나 신선이 항상 옹호하며, 14.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서 불법을 듣게 되며, 15. 마침내 불법의 진리를 깊게 깨닫게 된다.

불교 수행법은 독경, 염불좌선 정근 주력 등 모두 일심으로 무상무념에 이르러 보리도를 이루는 방법

생활속의 밀교

을 보게 된다.이를 지금의 우리 일상에 배대해 보자.

「진언행자가 도량에 나갈 때는 우선 손을 씻는다. 양치질을 한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는다.」 아침에 일어나 시작되는

밀교의례는 일상(日常)의 표현이다

우리의 일상과 다를 바 없다.몸을 단정히 하는 것은 진언행자가 도량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요,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 일상에 비유된다.경은 계속 이어진다.「도량에 이른다. 도량에 들어서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문을 연 뒤, 손가락을 세번 땀긴다.」

이를 탄지(彈指)라 하는데, 밀림에 들어갈 때 야수나 뱀 등을 쫓기 위한 고대 인도인들의 생활습관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을 밀교에서는 예불(禮佛)의 작법에 적용시키게 된다. 도량에 들어서면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탄지로써 깨우는 것이요, 무명중생이 예불 드린 다음에 불보살님께 알리는 신호이다. 우리 일상 가운데 뒷사람에게 물리는 문안인사를 연상케 한다. 이 새벽예불이 바로 도량석(道場釋)이요, 탄지나 헛기침의 역할이 묵적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밀교는 일상 그 자체를 밀법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법정원 법경>



에너지 절약, 효율적 캠페인

- 후원 : 산업자원부
- 협찬 : POSCO

다시 감을 수 없는 태양!

최근, 학자들은 지구 북반구에도 오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전,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구의 수명이 약 3,000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100여년 후면 지구의 석유자원이 바닥난다고도 합니다. 지구는 결코 되감을 수 없는 태양을 가진 셈입니다.

그러나 지구와 인류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은 차라리 행복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 문제입니다. 유가불안은 계속되는데 석유소비 증가율은 세계 1위입니다. 수출로 돈 벌어서, 기름값 대기 바빠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일본! 나 하나의 절약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4천만 배하면 엄청난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은 절약이 지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립니다.

현목의 세상읽기



우리 민족사에 있어 조선시대는 대단히 흥미 있고 박진감 넘치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 한편의 재미있는 대하연속극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거래의 근원인 단군신화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족사의 구비구비마다 갖가지 영웅담과 아기자기한 민중의 삶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를 읽는 재미는 조선시대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역사적 사실과 사실의 이면에 얹힌 야화 등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는 더하게 된다. 그 재미는 무엇보다 우리의 과거에서 오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려왕조를 거꾸러트리던 왕권을 장악한 이성계에 의해 세워진 조선왕조는 초창기부터 피로 열락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왕조에 걸맞게 진보적인 정치를 펼치고자 한 인물들은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이성계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아들들 역시 서로 피비린내를 풍겼다. 왕조의 첫 단추가 이렇게 끼여진 탓인지 왕조 600년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권모술수와 당쟁이 한시도 그치지 않았다. 상대방을 가가 막힌 계략으로 두고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였는가 하면 무고한 자를 역시 나중에는 그 음모를 단단히 받았다. 권력의 야욕에 눈이 어두워 조카를 살해하면서 왕권을 찬탈한 자도 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뒤주에 가둬 죽인 경우도 있다. 그런 중에도 사육신처럼 지조와 절개로 불의를 맞서 의연히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교연영색과 절묘한 처세술로 몇 대의 임금을 모신 자들도 수두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사는 재미가 있다. 그런데 조선 13대 왕인 명종조에 이르러 그 재미는 저절로 그치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선왕인 인종은 명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계모인 문정왕후의 등장에 못 이겨 훌륭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왕정을 펴보지도 못한 채 즉위하지 불과 8개월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명종은 나이 12살에 왕에 오르니 세상은 온통 숙성이 윤색인 문정왕후와 그 친정동기, 윤원형과 그 일파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나이 어린 이들의 뒤에서 나라의 정치를 도맡아 처리하는, 이른바 수렴청정을 하는 문정왕후와 윤씨 집안은 또 같은 윤씨끼리도 파를 나누어 서로 음해하고 제거하여 우리 역사에 있어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일대 살육극을 벌였다. 나라꼴이 이쯤 되고 보면 민중의 생활이 어찌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아무개 방송사의 연속사극 '여인천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적당히 각색한 것이다.

좌우지간 위에서는 권력욕에 가득 찬 권세자들이

왜구에 이처럼 쉽게 유린되고 백성과 부녀자가 왜구에게 도륙되던가 능욕을 당하게 된 이유는 명로하다. 권세자와 양반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모두 유랑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군대를 조직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부귀를 위해 민중의 생산물과 노동을 착취할 줄만 알지 그들의 힘이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점은 간파하기 마련이다. 자신들로 인해 백성이 먹고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은 세상을 저회할 대로 아는 체 할 뿐이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힘으로 민중의 고통을 짜내기에 급급한 자들이 민중의 절대절명 위기를 맞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적이 쳐들어오자 왕조와 양반들은 도망가기 바빴다. 제나라 민중에게 목숨 짓을 하였으니 믿을 것은 남의 나라 군대였을 것이다. 중국을 빌어 왜적을 물리치고자 했으나 정작 조선 땅에서 왜적을 막고 싸워 마침내 조국강토를 다시 찾은 군대는 민중이 스스로 조직한 의병이었다. 못난 권력자들이 만든 비극을 이겨낸 장하디 장한 조선의 민중이다. 그러나 그후에도 당쟁은 그치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의 강도도 줄지 않았다.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라고 했다. 조선왕조의 참담한 역사는 단순히 지난 사실이 아니다.

공교롭게 김영삼, 김대중씨의 실정이 주는 폐해는

그저 정치 경제의 정도가 아니다. 그들의 실정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제는 양김씨가 국민에게 '민주화'에 대한 실망을 안겼다는 점이다. 이들 이전 정권시절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또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가 국민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들어선 정부, 그것도 민주화운동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집권한 '민주적 정부'가 과거의 '비민주적 정부'보다 더 부패하고 부정하며 무능한 꼴을 보인 결과 국민의 정서가 '민주화'보다 '독재'에 대한 선호감을 갖게 하였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나 혹은 박정희를 닮은

정치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런 정서에서 나온 반발일 것이다. 이보다 더한 폐해가 있을 수 없다. 문정왕후의 권세를 업고 부패한 정치를 했던 명종 때의 일이 과거 역사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을 연발에는 또다시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은 아무래도 역사인식인 것 같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들의 책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훈과 반성을 요구

이를 망각한 권력욕은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1592년 전민적

인 침략을 감

행한다. 임진

왜란이다. 4월

에 부산을 침

공한 왜구는

불과 이십여

일만에 서울

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

도까지 이르

렀다. 강도가

왜구에 이처럼 쉽게 유린되고 백성과 부녀자가

왜구에게 도륙되던가 능욕을 당하게 된 이유는 명로하다.

권세자와 양반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모두 유랑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군대를 조직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부귀를 위해 민중의 생산물과 노동을 착취할 줄만 알지 그들의 힘이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점은 간파하기 마련이다.

자신들로 인해 백성이 먹고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은 세상을 저회할 대로 아는 체 할 뿐이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힘으로 민중의 고통을 짜내기에 급급한 자들이 민중의 절대절명 위기를 맞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적이 쳐들어오자 왕조와 양반들은 도망가기 바빴다. 제나라 민중에게 목숨 짓을 하였으니 믿을 것은 남의 나라 군대였을 것이다.

중국을 빌어 왜적을 물리치고자 했으나 정작 조선 땅에서 왜적을 막고 싸워 마침내 조국강토를 다시 찾은 군대는 민중이 스스로 조직한 의병이었다.

못난 권력자들이 만든 비극을 이겨낸 장하디 장한 조선의 민중이다. 그러나 그후에도 당쟁은 그치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의 강도도 줄지 않았다.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라고 했다. 조선왕조의 참담한 역사는 단순히 지난 사실이 아니다.

공교롭게 김영삼, 김대중씨의 실정이 주는 폐해는

그저 정치 경제의 정도가 아니다. 그들의 실정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제는 양김씨가 국민에게 '민주화'에 대한 실망을 안겼다는 점이다. 이들 이전 정권시절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또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가 국민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들어선 정부, 그것도 민주화운동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집권한 '민주적 정부'가 과거의 '비민주적 정부'보다 더 부패하고 부정하며 무능한 꼴을 보인 결과 국민의 정서가 '민주화'보다 '독재'에 대한 선호감을 갖게 하였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나 혹은 박정희를 닮은

정치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런 정서에서 나온 반발일 것이다.

이보다 더한 폐해가 있을 수 없다. 문정왕후의 권세를 업고 부패한 정치를 했던 명종 때의 일이 과거 역사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을 연발에는 또다시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은 아무래도 역사인식인 것 같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들의 책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훈과 반성을 요구

이를 망각한 권력욕은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1592년 전민적

인 침략을 감

행한다. 임진

왜란이다. 4월

에 부산을 침

공한 왜구는

불과 이십여

일만에 서울

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

도까지 이르

렀다. 강도가

왜구에 이처럼 쉽게 유린되고 백성과 부녀자가

왜구에게 도륙되던가 능욕을 당하게 된 이유는 명로하다.

권세자와 양반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모두 유랑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군대를 조직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부귀를 위해 민중의 생산물과 노동을 착취할 줄만 알지 그들의 힘이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점은 간파하기 마련이다.

자신들로 인해 백성이 먹고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은 세상을 저회할 대로 아는 체 할 뿐이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힘으로 민중의 고통을 짜내기에 급급한 자들이 민중의 절대절명 위기를 맞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적이 쳐들어오자 왕조와 양반들은 도망가기 바빴다. 제나라 민중에게 목숨 짓을 하였으니 믿을 것은 남의 나라 군대였을 것이다.

중국을 빌어 왜적을 물리치고자 했으나 정작 조선 땅에서 왜적을 막고 싸워 마침내 조국강토를 다시 찾은 군대는 민중이 스스로 조직한 의병이었다.

못난 권력자들이 만든 비극을 이겨낸 장하디 장한 조선의 민중이다. 그러나 그후에도 당쟁은 그치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의 강도도 줄지 않았다.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라고 했다. 조선왕조의 참담한 역사는 단순히 지난 사실이 아니다.

공교롭게 김영삼, 김대중씨의 실정이 주는 폐해는

그저 정치 경제의 정도가 아니다. 그들의 실정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제는 양김씨가 국민에게 '민주화'에 대한 실망을 안겼다는 점이다. 이들 이전 정권시절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또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가 국민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들어선 정부, 그것도 민주화운동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집권한 '민주적 정부'가 과거의 '비민주적 정부'보다 더 부패하고 부정하며 무능한 꼴을 보인 결과 국민의 정서가 '민주화'보다 '독재'에 대한 선호감을 갖게 하였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나 혹은 박정희를 닮은

정치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런 정서에서 나온 반발일 것이다.

이보다 더한 폐해가 있을 수 없다. 문정왕후의 권세를 업고 부패한 정치를 했던 명종 때의 일이 과거 역사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을 연발에는 또다시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은 아무래도 역사인식인 것 같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들의 책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훈과 반성을 요구

이를 망각한 권력욕은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1592년 전민적

인 침략을 감

행한다. 임진

왜란이다. 4월

에 부산을 침

공한 왜구는

불과 이십여

일만에 서울

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

도까지 이르

렀다. 강도가

왜구에 이처럼 쉽게 유린되고 백성과 부녀자가

왜구에게 도륙되던가 능욕을 당하게 된 이유는 명로하다.

권세자와 양반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모두 유랑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군대를 조직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부귀를 위해 민중의 생산물과 노동을 착취할 줄만 알지 그들의 힘이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점은 간파하기 마련이다.

자신들로 인해 백성이 먹고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은 세상을 저회할 대로 아는 체 할 뿐이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힘으로 민중의 고통을 짜내기에 급급한 자들이 민중의 절대절명 위기를 맞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적이 쳐들어오자 왕조와 양반들은 도망가기 바빴다. 제나라 민중에게 목숨 짓을 하였으니 믿을 것은 남의 나라 군대였을 것이다.

중국을 빌어 왜적을 물리치고자 했으나 정작 조선 땅에서 왜적을 막고 싸워 마침내 조국강토를 다시 찾은 군대는 민중이 스스로 조직한 의병이었다.

못난 권력자들이 만든 비극을 이겨낸 장하디 장한 조선의 민중이다. 그러나 그후에도 당쟁은 그치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의 강도도 줄지 않았다.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라고 했다. 조선왕조의 참담한 역사는 단순히 지난 사실이 아니다.

공교롭게 김영삼, 김대중씨의 실정이 주는 폐해는

그저 정치 경제의 정도가 아니다. 그들의 실정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제는 양김씨가 국민에게 '민주화'에 대한 실망을 안겼다는 점이다. 이들 이전 정권시절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또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가 국민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들어선 정부, 그것도 민주화운동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집권한 '민주적 정부'가 과거의 '비민주적 정부'보다 더 부패하고 부정하며 무능한 꼴을 보인 결과 국민의 정서가 '민주화'보다 '독재'에 대한 선호감을 갖게 하였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나 혹은 박정희를 닮은

정치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런 정서에서 나온 반발일 것이다.

이보다 더한 폐해가 있을 수 없다. 문정왕후의 권세를 업고 부패한 정치를 했던 명종 때의 일이 과거 역사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을 연발에는 또다시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은 아무래도 역사인식인 것 같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들의 책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훈과 반성을 요구

이를 망각한 권력욕은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1592년 전민적

인 침략을 감

행한다. 임진

왜란이다. 4월

에 부산을 침

공한 왜구는

불과 이십여

일만에 서울

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

도까지 이르

렀다. 강도가

왜구에 이처럼 쉽게 유린되고 백성과 부녀자가

왜구에게 도륙되던가 능욕을 당하게 된 이유는 명로하다.

권세자와 양반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모두 유랑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군대를 조직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부귀를 위해 민중의 생산물과 노동을 착취할 줄만 알지 그들의 힘이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점은 간파하기 마련이다.

자신들로 인해 백성이 먹고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은 세상을 저회할 대로 아는 체 할 뿐이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힘으로 민중의 고통을 짜내기에 급급한 자들이 민중의 절대절명 위기를 맞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적이 쳐들어오자 왕조와 양반들은 도망가기 바빴다. 제나라 민중에게 목숨 짓을 하였으니 믿을 것은 남의 나라 군대였을 것이다.

중국을 빌어 왜적을 물리치고자 했으나 정작 조선 땅에서 왜적을 막고 싸워 마침내 조국강토를 다시 찾은 군대는 민중이 스스로 조직한 의병이었다.

못난 권력자들이 만든 비극을 이겨낸 장하디 장한 조선의 민중이다. 그러나 그후에도 당쟁은 그치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의 강도도 줄지 않았다.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라고 했다. 조선왕조의 참담한 역사는 단순히 지난 사실이 아니다.

공교롭게 김영삼, 김대중씨의 실정이 주는 폐해는

그저 정치 경제의 정도가 아니다. 그들의 실정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제는 양김씨가 국민에게 '민주화'에 대한 실망을 안겼다는 점이다. 이들 이전 정권시절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또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가 국민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들어선 정부, 그것도 민주화운동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집권한 '민주적 정부'가 과거의 '비민주적 정부'보다 더 부패하고 부정하며 무능한 꼴을 보인 결과 국민의 정서가 '민주화'보다 '독재'에 대한 선호감을 갖게 하였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나 혹은 박정희를 닮은

정치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런 정서에서 나온 반발일 것이다.

이보다 더한 폐해가 있을 수 없다. 문정왕후의 권세를 업고 부패한 정치를 했던 명종 때의 일이 과거 역사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을 연발에는 또다시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은 아무래도 역사인식인 것 같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들의 책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훈과 반성을 요구

이를 망각한 권력욕은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1592년 전민적

인 침략을 감

행한다. 임진

왜란이다. 4월

에 부산을 침

공한 왜구는

불과 이십여

일만에 서울

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

도까지 이르

렀다. 강도가

왜구에 이처럼 쉽게 유린되고 백성과 부녀자가

왜구에게 도륙되던가 능욕을 당하게 된 이유는 명로하다.

권세자와 양반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모두 유랑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군대를 조직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부귀를 위해 민중의 생산물과 노동을 착취할 줄만 알지 그들의 힘이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점은 간파하기 마련이다.

자신들로 인해 백성이 먹고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은 세상을 저회할 대로 아는 체 할 뿐이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힘으로 민중의 고통을 짜내기에 급급한 자들이 민중의 절대절명 위기를 맞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적이 쳐들어오자 왕조와 양반들은 도망가기 바빴다. 제나라 민중에게 목숨 짓을 하였으니 믿을 것은 남의 나라 군대였을 것이다.

중국을 빌어 왜적을 물리치고자 했으나 정작 조선 땅에서 왜적을 막고 싸워 마침내 조국강토를 다시 찾은 군대는 민중이 스스로 조직한 의병이었다.

못난 권력자들이 만든 비극을 이겨낸 장하디 장한 조선의 민중이다. 그러나 그후에도 당쟁은 그치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의 강도도 줄지 않았다.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라고 했다. 조선왕조의 참담한 역사는 단순히 지난 사실이 아니다.

공교롭게 김영삼, 김대중씨의 실정이 주는 폐해는

그저 정치 경제의 정도가 아니다. 그들의 실정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제는 양김씨가 국민에게 '민주화'에 대한 실망을 안겼다는 점이다. 이들 이전 정권시절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또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가 국민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들어선 정부, 그것도 민주화운동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집권한 '민주적 정부'가 과거의 '비민주적 정부'보다 더 부패하고 부정하며 무능한 꼴을 보인 결과 국민의 정서가 '민주화'보다 '독재'에 대한 선호감을 갖게 하였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나 혹은 박정희를 닮은

정치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런 정서에서 나온 반발일 것이다.

이보다 더한 폐해가 있을 수 없다. 문정왕후의 권세를 업고 부패한 정치를 했던 명종 때의 일이 과거 역사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을 연발에는 또다시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은 아무래도 역사인식인 것 같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들의 책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훈과 반성을 요구

이를 망각한 권력욕은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1592년 전민적

인 침략을 감

행한다. 임진

왜란이다. 4월

에 부산을 침

공한 왜구는

불과 이십여

일만에 서울

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

도까지 이르

렀다. 강도가

왜구에 이처럼 쉽게 유린되고 백성과 부녀자가

왜구에게 도륙되던가 능욕을 당하게 된 이유는 명로하다.

권세자와 양반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모두 유랑민으로 되었

따뜻한 정성 나누면 커져요

역삼재가노인복지회관 복지사업 맹활약



9명의 연꽃처럼 온화한 미소와 향기를 지닌 보살이 있다. 그들의 손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고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 향기가 베어있는 보살의 모습이었다.

불교총지종 역삼재가노인복지회관(관장 여익구)을 운영하고 있는 9명의 보살들은 지역에 어렵고 힘든 노인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가 노인들의 손발이 되고 친구가 되고 때로는 그들의 손자 손주가 되어 희망과 따뜻한 사람의 온정을 심어준다.

상황의 열악함에 얼굴에 짜증한 번 안내고 서로 돕는 자비행은 나날이 발전한 물질문명속에 개인화 되고 이기주의적화 되는 현대 사회에 꺼지지 않는 연등이 되고 있다.

◆ 자원봉사자 감사잔치

2001년을 보내며 한해동안 본 센터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활동하셨던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원봉사 감사잔치를 12월 19일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장님의 인사말씀, 2001년 사업보고, 담당자의 감사의 글 낭독에 이어 레크레이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간에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 재가어르신 내의전달

본 센터에서는 12월 26일 삼성물산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후원을 받아 식사배달과 밀반찬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는 저소득 어르신 50분께 따뜻한 겨울내외를 선물하였다. 어르신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고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며 고마워 했다.

◆ 심지회 무료한방진료

12월 22일 늘봄한의원 최영희 원장님을 비롯한 심지회 회원 여러분

께서 지역어르신을 위하여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해 주셨다. 진료, 침, 부항 등 의 처치를 받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최영희 원장님의 정성을 다해 진료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하였고 지속적인 진료가 이뤄지기를 원하였다.

◆ 주간보호

▷ 생신잔치
12월 주간보호 생신잔치가 3일에 진행되었다. 이번 달에는 박양옥(86), 백순자(67), 정갑순(89) 할머니와 조주열(76) 할아버지 네 분이 생신을 맞아, 여러 이용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 운영간담회

12월 7일 주간보호 운영간담회가 이용자 가족과 관계직원이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2001년 기관사업 및 운영비 보고와 2002년 주간보호 사업 추진방향에 제시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기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가정봉사원과 견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호자들의 이용자 수발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01년 가족송년잔치

한해를 정리하는 송년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1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 및 가족, 봉사자와 2001년을 함께 한 기관의 관계자를 모시고 발표회와 전시회를 포함한 송년잔치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발표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용자들께서는 행사 당일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시어 많은 박수를 받았고 주간보호 개소 이래 현재까지 이용자분들께서 순수 완성하신 작품과 활동사진을 모아 구성한 전시회는 외부 참가자에게 주간보호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

히 3부 순서에 마련된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념 공연은 참가자를 모두 감동시키며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

▷ 경비직 취업적응교육 실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비교육이 북부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재취업에 임하는 자제, 보안경비의 실무, 인간관계훈련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경비직 알선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욕구에 적합한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였다.

▷ 보모·환경미화직 재교육실시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는 지난 일년동안 보모직과 환경미화직의 취업적응교육을 마치고 취업하신 여러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12월 22일 각각 동부와 서부센터에서 실시되었으며, 어르신 건강관리법, 친절교육과 취업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 청소년 겨울방학 자원봉사

본 센터에서는 겨울방학동안 어르신을 이해하고 보람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 프로그램명: 어르신 이해하기
- 기간: 2002년 1월 7일 ~ 1월

18일중 3일

- 내용: 주간보호 일일 순주되어 드리기, 식사배달 업무보조, 어르신 정보지 만들기
- 모집인원: 중·고등학생 40명(선착순 마감)
- 기타: 식사본인부담

◆ 설음식 나누기

2002년 2월 8일에는 설날을 맞이하여 저소득 어르신들께 설음식 나누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절을 쓸쓸히 혼자 보내실 어르신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 역삼올타리 발행 변경 안내

그동안 매달 발행되었던 역삼올타리가 2002년부터 분기별로 3, 6, 9, 12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시 관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외 이웃에 자비 행렬 이어져

불우이웃 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불교총지종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지에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해암 통리원장은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 제일이며 자비행의 실천은 현대인들의 각박한 세대에 작은 감로수가 될 것이다"며 동체대비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번 성금은 역삼동사무소에 기탁하였으며, 6대 금강송지 총지 수련원이 있는 과산군 청천면과 이평리에 각각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하였으며, 울진 왕곡 한농 4-H 유기농 회원들에게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불교총지종과 결연을 맺어 매년 진행될 십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원승 총무부장은 "불교총지종은 연말이면 일회성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매

년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며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 따뜻한 손길을 쫓아"하였다. 또한 해암통리원장은 한국방송공사에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총 500여 만원을 지원되었다.

해암복지재단 이사장 서울시장 표창 수상



본 종단 복지재단 해암 이사장은 신사년 마지막 날 그간 노인복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표창을 수상하였다.

2001년 12월28일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대신 수여하고 서동석 사무국장이 대신 수상한 이 표창(상훈번호 1-2695)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로써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다.

한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그간의 사업 외에 신사년에는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

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다.

쏟소리 단소리

개같이 벌여 정승처럼 써라

현대 자본주의 세계는 물질이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 물질의 가치는 물질에 녹아 있는 노동력보다는 물질의 외화된 모습인 돈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람은 많은 돈을 벌고자 하고 돈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헤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거리화 된다. 삶의 모든 것이 돈으로 대체되어 온 나라는 한탕주의의 열풍인 복권열풍에 휩싸여 있다. 사방에서 억! 억! 하며 허풍에 아쉬워하고 있다.

옛 말에 "개같이 벌여 정승처럼 써라"고 돈벌고 쓰임에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개 같이 벌라함은 온갖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벌이에 귀천을 따지지 말라는 말이며, 정승처럼 쓰라함은 요즘에 자주 오르내리는 명품족이나 최고급 상품만 쓰라는 말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서린 말이다.

얼마전 이런 이야기를 본적이 있다. 고비라는 부자에게 돈버는 비법을 물으러 온 젊은이가 있었다. 고비는 젊은이에게 시키는 대로해야 한다는 다짐을 받고 벌거벗긴 다음 나무에 오르게 했다.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옮겨가게 한 다음 두 손으로 가지 끝을 잡고 늘어지라고 시켰다. 그리고 한 손을 놓으라고 시키는 것이었다. 나무 아래에는 구경꾼들이 나체를 올려보고 있어 이만저만한 창피가 아니었다. 고비는 젊은이에게 "돈은 이처럼 창피를 무릅쓰야 하고 일단 잡으면 적진 많진 않지만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한다" 했다. 그러나 무조건 쓰지 않는 것이 돈을 모으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를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돈에 헤프고 작은 돈에 인쇄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치고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고 돈을 모으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반대적인 의미도 좋은 방법은 아니나 큰 돈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의 소중함과 돈 쓰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모두가 교도님들의 정성이기에...

세계합창올림픽대회 불교음악 정각사, 만보사 등 총지합창단



2002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합창올림픽이 열린다. 이번 합창올림픽에서는 과거 제1회 합창올림픽(호주개회)에서 보여주었던 기독교 음악중심의 참가기준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이번 부산 대회에서는 참가 기준을

영에 대한 골격을 △19~20세기 종교음악에 중점을 두며 △한국의 불교와 같은 기타 종교의 경우 그 시대의 음악사조를 반영하는 작품을 허용 △ 불교 및 유교 등 한국의 고유한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된 곡이나 사상이 반영된 민속음악 참가 권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불교합창단이 국제합창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불교총지종은 총창전라교구 합창단 및 부산 경남 합창단이 중심이 되어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 참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심인장(만보사 신정회장 및 총창불교합창단 단장)은 "불교총지종 단일 합창단으로 참여는 어려우나 지역 연합합창단에 불교총지종의 이름으로 참가를 하여 밀교종단인 불교총지종의 이름을 대외에 홍보하는데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다"며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 중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하나한방 병원

대체의학점목·협진

하나의원

- 한방 제1과 : 병원장
중풍, 탈모, 성인병, 심장질환, 만성피로, 두통/어지러움, 불면/수면장애, 치매, 핫병
- 한방 제2과
남성, 중풍, 수험생, 성장, 당뇨, 알러지, 간기능, 남·여 불임
- 한방 제3과
비만, 성장, 수험생, 부인병, 갱년기, 알러지, 만성변비, 피부미용, 소아
- 한방 제5과/침구과
통증/재활, 척추, 관절,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내과질환

- 신경정신과
대체의학(아로마테라피 등) 스트레스, 만성피로, 탈모, 불면/수면장애, 치매
- 가정의학 1과
비만, 만성변비, 일반질환, 일반검진, 종합검진
- 가정의학 2과
갱년기 호르몬, 알러지, 비염, 소아감기, 종합검진
- 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 보철, 구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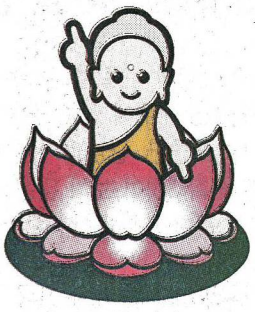
◎한방물리요법실 ◎스포츠의학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양방 건강검진센터 가동 중!!
◎직장인 및 학생을 위한 야간진료 실시 중!!
(비만, 성장, 수험생 클리닉)

동·도의학 협진
강남하나한방병원·의원
Hana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enter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2
TEL: (02)569-1011~4
FAX: (02)563-5577

교통편

- 버스A: 33, 212
- 버스B: 일반/21, 63-1, 65, 69, 33, 5, 6-2, 555-2, 571-1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 ⑩번 출구



총기 30년 이모저모



12대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해암종사 선출

정통 밀교 총도량 본산 건립 등 4개 목표 제시



지난 1월18일 임시 중앙총의회에서 불교총지종 제 12대 통리원장에 부산경남 교구장인 실보사 주교 해암 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2월15일 통리원장 취임식을 하였다.

해암 통리원장은 취임사에서 정통 밀교 총도량인 본산 건립, 법의 가사 및 불단 장엄, 인재육성발굴, 복지시설 확충 등 4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부장 인사에서는 총무부장 밀인사 주교 원승, 재무부장 정혜서원당 주교 지성, 사회부장 덕화사 주교 대원, 교정부장 총지사 주교 법등을 선출하여 제 12대 집행부가 정식출범을 하였다.

스님의 높은 뜻 길이 길이 후세에 전해져

기로스승 청암종사와 청신화 지수님 열반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한해가 되었다. 기로스승인 청암종사와 청신화 지수(마산 운천사)님이 지난 2월10일과 9월4일 각각 열반에 드셨다. 청암 종사께서는 평생 중생교화와 전법의 일선에서 진언연승의 공덕을 널리 퍼셨던 분으로 참종 원년 경주 건화사 주교의 소임을 맡으신 이래 부산 경남 교구장, 제 6대와 8대 통리원장을 지내셨다.

또한 청신화 지수께로도 참종 초기 마산 관혜서원당(현 운천사) 주교의 소임을 맡으신 이래 원외의 의원, 제 6대와 7대 중앙총의회 의원을 지내셨다.

점점 연로하신 기로스승이 늘어만 간다. 우리 종단에서도 퇴직 후 기로스승에 대한 복지시설과 여가 시설을 확충하여 평생 진언연승에 매진하신 덕 높으신 스승의 뜻을 기려야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평생 퍼신 중생교화의 참뜻을 연구하여 체계적인 자료로 남겨 후학들이 보고 배우는 모범을 세워야 한다.

광주 법황사 및 전주 흥국사 사원 신축

호남지역 포교의 중심지로 우뚝 선 사원

지난 12월 19일 전담건설위원회는 광주 법황사 시공에 원 건축 설계사무소와 (주)국토건설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호남지역 포교의 중심지로 우뚝 선 사원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2002년 11월에 완공될 법황사는 가동과 나동으로 나누어서 가동 178평은 서원당 및 종교시설로 나동 250평은 근린 생활시설로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현대적 미와 종교시설의 엄숙함 그리고 한국 고전적인 미를 강조한 법황사는 초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 교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교화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민과 하나되는 사원을 준비중이다.



▶광주
법황사
조감도

▶전주
흥국사
조감도

중앙신정회 창종 30년 만에 정식 출범

불교 총지종 교세발전과 포교활동 강화



중앙신정회가 창종 30년만에 정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분회, 지회, 중앙회라는 골격을 갖추 불교총지종 교세발전과 포교활동에 교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길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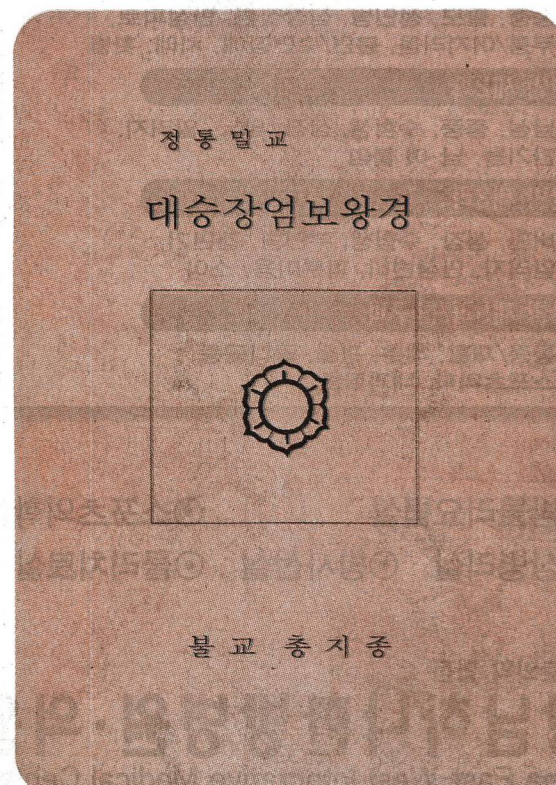
이날 신정회 회장에 밀성관(정각사) 및 부회장 정법화(관성사) 김수인(수인사) 심인장(만보사) 3인이 선출되었으며, 감사 2인에 이인성각자(총지사), 최운정(국광사)가 선출되었으며 총무에 김동운(관성사)각자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어렵게도 중앙신정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한해가 되었다. 커다란 사원과 관심속에 출발을 하였으나 종단과 신정회와의 관계, 그리고 중앙신정회의 기초인 분회와 지회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였으며, 스승님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부족등으로 미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혜경(관성사) 보살님은 "중앙신정회의 어려움은 잠시이며 앞으로 중앙 임원 선출과 분회 및 지회신정회를 다듬어서 원정대성사님의 창종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시급성이 될것이다"고 말하며 교육과 포교 그리고 사회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대승장엄보왕경

소의경전 재역경 마무리 단계에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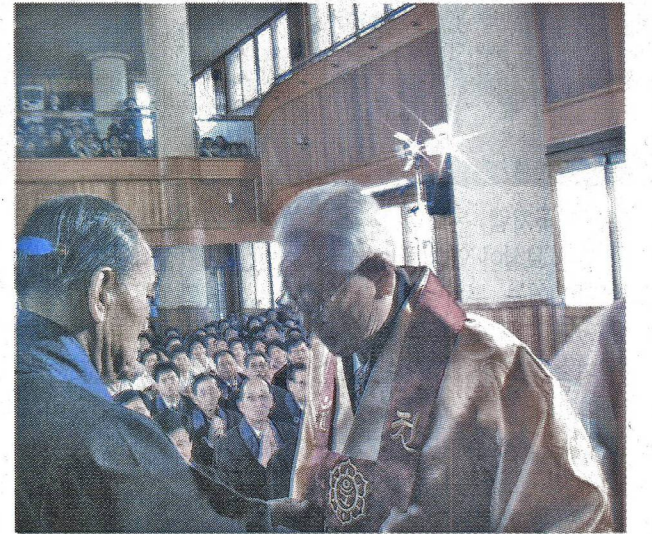


종단의 소의경전인『대승장엄보왕경』에 대한 재역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장원에서 지난 해부터 시작한 재역경 작업은 간정(刊定), 운문(潤文) 등을 거쳐 가원집 제본을 마친 상태. 새해불공이 끝나는 대로 승단의 중진스승님들이 감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재번역은 원문 대조와 확인작업을 가장 큰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인명이 나 지명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한문본 표기대로 번역하였고, 어법은 현대 맞춤법에 따라 서술하였다. 또 문장과 문체, 경어법, 종결형 어미, 문장부호, 마침표, 각주, 띄어쓰기 등은 법례를 정하여 처리하였다. 특히, 풀어서 서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문의 단어를 대괄호 속에 넣어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전 4권으로 구성된 본 경은 중인도의 아란타라국 밀립사 삼장 사문 천식재(天意災)가 송나라 태종 5년(980년)에 오전나국 삼장 시호(施護)와 함께 송나라에 와서 임금의 부름을 받고 번역한 것이다. 내용은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 때, 제재장보살의 청(請)에 의하여 관자재보살의 위신공덕과 육자대명다라니를 설한 것이다.

가사·법의 봉대 가지 불사

이모저모



▲종령님께 황금색 법의에 자색가사를 봉대하여 주시는 통리 원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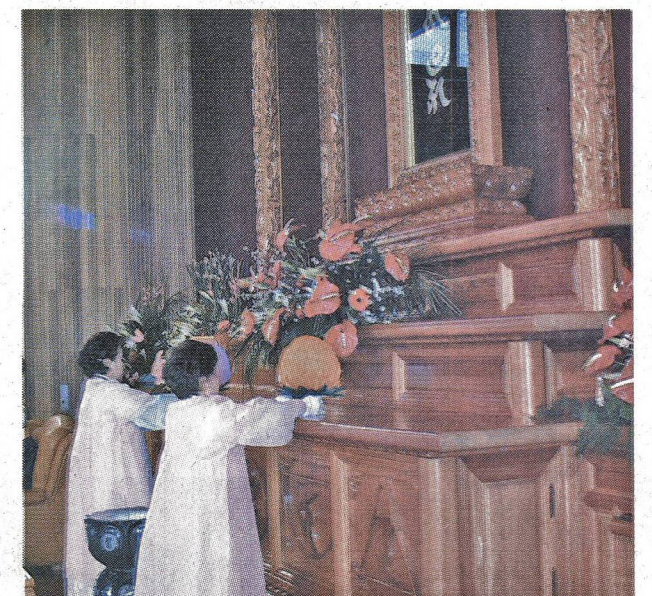
▲가사 법의 이운에 많은 교도가 참여했다. 스승님의 가사, 법의를 불단에 모시고 있다.



▲정각사 스승님이 새법의 가사를 읽고 교도들과 한지리에...



▲기로스승님의 은가사가 유난히 온화한 빛을 발하고 있다.



▲육법공양을 올리고 있는 교도들. 육법공양은 향, 등, 차, 꽃, 과일, 쌀 등 여섯가지 공양물을 부처님전에 올리는 것을 가르킨다.